동국제약 에스트로겐 함량 ⅓ 줄인 피임약 출시

보관용 파우치로 위생적 보관 가능

동국제약은 기존 저용량의 피임약 대비, 에스트로겐 함량을 1/3로 줄인 0.02mg의 초저용량 피임약 '릴리애정'을 16일 출시했다.

경구제 피임약인 '릴리애'는, 국내 최저 함량의 '에스트로겐'과 '데소게스트렐' 성분의 3세대 피임약으로, 2세대 피임약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드름 등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피임약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장품 파우치나 가방에 약을 넣고 다닐 경우 포장이 손상되기 쉽다. 릴리애는 '보관용 파우치'가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약의 오염을 막고, 위생적인 보관 및 복용이 가능하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릴리애는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에스트로겐 함량을 낮추는 추세를 반영했다"며 "피임약을 처음 사용하거나 여드름 등의 부작용을 겪었던 여성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릴리애는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1일 1정씩, 별도 표기된 순서대로 복용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제약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릴리애

영암 사우스링스에 'S라운지 1호점' CJ프레시웨이 'S라운지'에서 도입한 서빙 로봇에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 담겨있다. /CJ프레시웨이

롯데제과 냉동 베이커리시장 가세 '생생빵상회'

해동, 발효 없이 10분간 조리

롯데제과의 제빵 브랜드 기린이 집에서 에어프라이어, 전자렌지로 조리해 별도의 해동 과정 없이 갓 구운 빵을 즐길 수 있는 냉동 베이커리 '생생빵상회 7종'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생생빵상회'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는 발효냉동생지 4종과 전자레인지로도 조리가 가능한 간식용 조리빵 3종 등 총 7종의 제품이 있다.

발효냉동생지 4종에는 '미니 크로아상', '미니 메이플피칸', '미니 팡오쇼콜라', '미니 바닐라크라운'이 있다.

기존의 냉동생지 제품은 해동이나 발효 등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제품은 이 과정 없이 에어프라이어와 광파오븐에서 약 10분간 조리하면 갓 구운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25년 전통의 유럽 페스트리 기술이 가미된 '슐스타드' 생지를 사용, 국내 냉동생지 설비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정통 페스트리의 식감을 그대로 살려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다.

조리빵 3종은 '갈릭 소시지빵'과 '감자마요 찰볼', '미니 크림치즈 프레즐'이다. /박인웅 기자

하이트진로 '하이트 66종 스페셜' 잇-어워드 대상

美 수출전용 상품으로 한정판 출시
교민들에 고국에 대한 자부심 선사

하이트진로는 미국 수출전용 상품으로 출시한 '하이트 66종 스페셜 에디션'이 '2019 잇-어워드' 주류 패키지디자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트 66종 스페셜 에디션'은 '그리운 한국, Miss 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교민들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 자부심을 선사하고자 지난해 한정판으로 출시돼 지난 12월까지 판매됐다.

특히 '한국의 맛과 멋, 그리고 그곳'을 주제로, 명소, 음식, 문화재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총 66가지 특색 있는 일러스트 디자인의 라벨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 66종 스페셜 에디션 라벨 /하이트진로

/박인웅 기자 parkiu7854@

광동제약, 더 젊고 빨라진다

직급 호칭 없애고 성과제 도입

Kwangdong

직급체계 7단계→4단계로 간소화
성과 따른 '스페셜 인센티브' 신설
'탤런트 세션' 우수 인재 조기 발굴

광동제약이 젊고 빠른 조직으로 변신을 꾀한다.

1963년 창업한 후 57년을 맞은 광동제약은 올해 초 직급체계를 간소화하고, 성에 따른 연봉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 노력을 시작했다.

광동제약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성과 개선 및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를 지난 1일 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직급체계를 7단계(사원~부장)에서 4단계(G1~G4)로 간소화했으며, 직급과 관계없이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고 존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상호존중의 문화가 확산되고, 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성과에 따른 연봉체계를 고도화하고 직책자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뛰어난 성과에 대한 '스페셜 인센티브'를 신설해 역할과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를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고, 임원 및 팀장 등 리더 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탤런트세션(인재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인사제도 고도화를 위해 각 직급 및 사업부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타사 및 선진 사례 연구, 개선안에 대한 구성원 리뷰도 같이 진행해 광동제약에 최적화된 인사체계를 구축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조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인사제도를 고도화했다"며 "광동제약의 핵심가치 중 '소통과 협력' 그리고 '인재제일'을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도입한 워크 스마트 프로젝트도 업무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워크 스마트 프로젝트는 사내에 존재하는 비효율적 관행들을 찾아 제거하고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등 5가지 분야에서 업무표준을 정립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프로젝트 실행 후 지난해 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의 직원들이 비효율적 관행개선과 새로운 업무표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광동제약은 지난 9~10일 신년 워크숍을 진행하고 '혁신경영'을 주제로 ▲수익구조 혁신 ▲경영체질 혁신을 통한 변화 선도를 실천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협력사 대금 870억 설맞이 조기 지급

AMOREPACIFIC

800개 기업에 최장 14일 앞당겨 지급
2000년대부터 거래 대금 조기 집행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87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금 지급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4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800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30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87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은 1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현금 지급된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협력회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장 14일 앞당겨 납품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사와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 부담을 해소하고자 명절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해 설에도 563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위메프 "사장님 부자되세요!" 상생 지원 확대

온라인 판매 컨설팅·홍보활동 지원

위메프가 신규 파트너사들의 판매 및 홍보 컨설팅에 나선다. 기존 수수료 절감, 빠른 정산 등 정책에 더해 추가적인 상생 지원활동을 확대한 것.위메프는 '부자 사장님 프로젝트'를 가동, 소상공인과 중소 파트너사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부자 사장님 프로젝트는 좋은 상품을 보유하고도 온라인 시장 진출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판매자를 발굴해 위메프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활동이다. 신규 입점하는 파트너사 중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되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판매 컨설팅 및 회사의 대외홍보 활동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신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주요 4대 혜택(▲판매수수료 4% 적용 ▲서버비 면제 ▲1주 정산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노출)에 더 빠르게 온라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한 것.

위메프 '부자 사장님 프로젝트'

위메프의 각 분야 MD들은 신규 입점 파트너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 이 중 매 월 담당 MD와 상생 활동을 통해 우수한 매출을 기록한 '우수 신규 파트너사'를 선정해 감사패와 상장, 위메프 포인트를 전달한다.

우수 신규 파트너사는 위메프 공식 채널에서 회사를 홍보할 수 있다. 그 외 각 종 SNS 및 웹사이트 등에서도 활동 내용을 알릴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BTS와 협업 청년들에 희망의 메시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방탄소년단(BTS)와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스타벅스커피는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방탄소년단(BTS)과 컬래버레이션한 퍼플 색상의 음료 1종, 푸드 5종, MD 상품 6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Be the Brightest Stars'를 테마로 한 새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1일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너는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라는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박인웅 기자